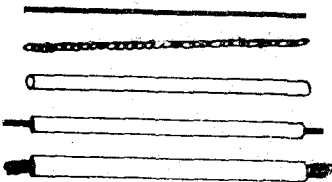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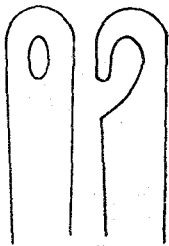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9. 일본을 알고

#### 일본을 이겨내자

칫솔의 손잡이구멍이 작아서 못에 안 걸린다. 이때 어떻게 해서라도 걸 수 있게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지금 일본의 교육이다.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려는 것이다.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현관벽에 걸린 우산 손잡이에서 힌트를 잡아 줄로 칫솔 손잡이 한 쪽을 썰었다. 눈 감고도 척 걸 수 있는 칫솔이 태어났다.



이렇게 어린 국민학교시절부터 문제해결력을 몸에 익히면 평생을 생각하며 창조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일본 가정주부. 철사로 한 빨랫

줄에서 녹이 빨래에 묻었다. 큰일이 다 싶어 녹안스는 빨랫줄을 찾기에 바빴다. 얼마뒤에 나일론끈이 좋겠다 싶어 나일론 빨랫줄로 해 봤다. 그러나 이것도 한참 쓰다보니 새끼처럼 썩 나일론 빨랫줄 사이에 먼지와 때가 끼어서 또 고민. 다시 먼지 안끼는 빨랫줄 찾기에 시일이 흘렀다.

어느날 벽돌공들이 좌우의 수평을 잡느라라고 가느다란 비닐호스에 물을 담아 쓰는 것을 봤다.

「옹지 비닐호스빨랫줄이 좋겠다」라고 당장 몇 발 구해서 빨래를 널었더니 녹과 먼지는 쉽게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많은 빨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축 늘어지지 않는가!

국민학교부터 다듬어진 발명기법인 더하기가 창조의 기초임을 실천에 옮겼다. 서둘러 비닐속에 철사를 넣은 비닐철사를 만들고, 다시 비닐나일론 끈도 만들어 빨랫줄로 써 봤다.

둘 다 튼튼하기 이룰때 없는 빨래줄이 됐으나 나일론끈을 넣은 빨랫줄이 급제발명이 됐다. 서둘러 특허출원하여 특허가 내리자 일본 국내만도 1억 2천만의 인구가 애용하는 신제품이 되어 일약 기업가로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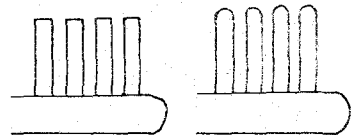
「돈을 벌고 싶으면 머리를 쓰고,

머리를 쓰러거든 불편한 것에서 찾아라」고 충고한다. 현재를 만족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란 어렵다.

불평(不平) · 불만(不滿) · 불편(不便)을 찾아내는 것이 곧 발명의 시작이다.

일본 어느 회사원. 자사제(自社製) 플라스틱칫솔을 썼더니 잇몸이 아프고 칫솔에 피가 묻어나오지 않는가. 언짢았다. 속이 상했다. 배리고 싶었다. 이때 「속 상하는 것을 고치면 돈이 된다더라」라는 발명의 금언이 생각나서 돌보기로 칫솔을 확대해 봤다. 드디어 문제 발견. 칫솔의 털끝이 모가 나서 날카롭지 않은가!

「옹지! 모가 났으니 모를 죽여 둥글게 해 보자」



이리하여 하나의 평사원이던 그는 전무로 올라섰고 무명회사를 일류회사로 바꾸었다. 사원도 회사도 함께 살게 됐다.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들이 경제대국이 된 큰 원인은 이렇게 제안제도(提案制度)를 활발하게 했기 때문이다.



강 신 목  
〈새생각회 회장〉

## 10. 음식은 소화라, 지식은 응용하라

음식은 꼭꼭 씹어먹어야 소화(消化)가 잘 되어 영양이 된다.

지식은 잘 응용(應用)해서 지혜로 만들때에 바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지식을 익히지만, 그 수많은 지식을 지혜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마치 소화 안되는 음식처럼 의욕만 쫓지 상상하고 창조하는 교육에 너무 소홀했고 또 무능(?)하다고 하겠다.

소화안되는 음식을 무엇에 쓰며, 응용 안하는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야! 얼마나(量)가 아닌, 어떻게(質)를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 교육이 되어지기를 충심으로 빈다. 스승과 학생 모두 같이 반성하자.

## 11. 아이디어로 인생을 꽃피워라

외국의 소설가로 우리나라에서 서머셋·모옴만큼 많이 읽힌 소설가도 드물 것이다.

그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30여년 전의 일이지만 계속해서 단행본으로 인기서적을 유지해 왔다.

그가 아직 무명시대에 자기의 책이 생각처럼 잘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잘 팔릴 수는 없을까?」하고 다음과 같은 구혼광고를 신문에 실었다.

「본인은 운동과 음악을 사랑하고 교양있는 낭만스러운 성질의 젊은 백만장자로 모든 점이 서머셋·모옴의 최근의 소설의 여주인공 그 대로의 젊고 아름다운 소녀와의 혼인을 바랍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대성공했다. 광고를 읽은 여성은 물론 남자들까지 다투어 그의 소설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 때문에 그의 책은 날개돋친듯 팔리기 시작했고 그 뒤 줄곧 인기서적이 됐다.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은 「튼튼해서 장수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승용차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 그 장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워 「폭스바겐은 절대로 고장이 없습니다」라는 설명광고를 자주 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연구한 결과 기발한 광고문을 생각해 냈다. 다

음은 그 광고문이다.

「고장으로 수리차에 끌려가는 폭스바겐을 본 분에게는 상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역수광고를 쳐서 대성공했다. 혹시 당신이 이 이상의 광고문을 생각했다면 그 아이디어는 비싼 값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광고는 돈만 걸기만하면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조그만 아이디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TV에서 방송의 최후의 10초를 사서 「지금부터 침묵의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도 안드는 간단한 광고로 미국의 내쇼날 은행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조그만 머리의 지혜 짜내기에 따라서 일생동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세상은 바야흐로 두뇌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 건전하게 쓴다면 쓰면 쓸수록 팔팔 솟아나는 샘물처럼 무한의 슬기와 아이디어를 낳게 하는 무한의 보물창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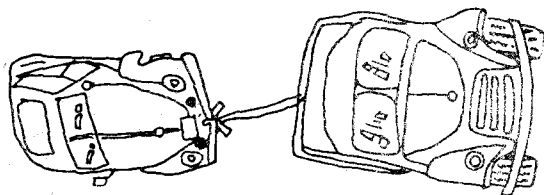
## 12. 승부는 발명이 좌우한다

다윈은 진화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물은 모두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것이 일간이다」

옛날 옛적에 인간은 성성이나 고릴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도리어 다른 동물보다 힘이 약했다. 달리기도 뒤졌고 또 손톱이나 이빨도 날카롭지 못했다. 생존경쟁에서 무엇 하나 무기가 없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최강자가 되었을까?

백만년 전의 어느 날, 인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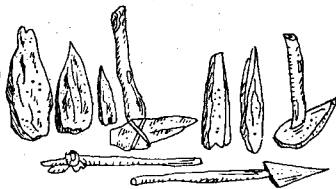
모여앉아 얼굴을 맞대고 의논을 했다.

「아무래도 족심이 센 고릴라를 당할 수 없다. 친구가 잡혀머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었다.

그러자 그 때 한 사람이 「고릴라와 싸워 곧 죽게 됐을 때 곁에 있던 돌을 잡아 광하고 머리를 때렸더니 고릴라가 꺾 하고 죽어 버렸다」고 말하면서 돌로 옆의 인간의 머리를 두들겨 보았다. 모두가 따라해 보니 그것은 손톱으로 할퀴는 것보다 훨씬 아픈데 놀랐다.

이 사건은 그 때의 인간에게는 노벨이 화약을 발명한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 그 뒤로는 인간이 고릴라를 향해 갈 때는 언제나 돌을 가지고 갔다. 그러는 동안에 돌에 자루를 달고, 다음엔 돌에 날을 세우고, 자루를 길게 해 창으로 하고, ... 이렇게 인간의 발명은 자꾸 자꾸 발전해 왔다.



그러나 백만 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고릴라는 아직도 돌을 써서 적과 싸우는 일조차 발명 못했다. 이런 차이가 힘이 약한 인간을 최우수자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발명력이 있는 자」만이 언제나 싸움에 이길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도 따지고 보면 발명의 경쟁이었다.

일본은 양동이계주의 연습에서, 중학생의 근육 노동까지 끌어모았지만, 미국은 「노력보다」 전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시간을 절약하는 아이디어」

「자원을 절약하는 아이디어」

「전쟁을 이기는 아이디어」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그것도 발명초심자의 「셀룰로이드가루에 인을 발라서 비행기로 적국의 상공에 뿌리면 중도에서 공기마찰로 발화하여 타면서 지붕 위에 떨어지니까 불태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채용되었다. 이 불비로 일본은 망했다. 거기에는 원자폭탄이란 엄청난 신무기가 발명되어, 불바다가 된 일본에 급소를 찔렀던 것이다.

### 13. 지능과 경험이

#### 발명한다

「발명은 지능과 경험이 만들고, 지능과 경험은 훈련이 만든다」고 한다.

발명은 물리·화학과 그의 응용과 생각하기, 특히 전기나 기계에 대한 공학상의 지식이 필요하다. 발명은 이처럼 이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곤란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작력」이다. 이것이 없으면 발명의 결말을 잘 매듭짓지 못한다.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장난감을 주면 그것과 노는 흥미와 함께, 그 장난감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 많은 경우 노는 흥미를 한 번 맛보면 그것을 뜯어서 알맹이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럴 때 구미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뜯는 것에 그리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함께 거들어서 잘 분해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알맹이를 알아보고 끝나면, 다시 아이들의 앞에서, 그것을 원상대로 조립해 주는 성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부모들은 이제 갓 사 준 장난감을 아이들이 부수거나 할라치면 폭발적으로 꾸짖고 만다.

이와같은 풍토에서 우리 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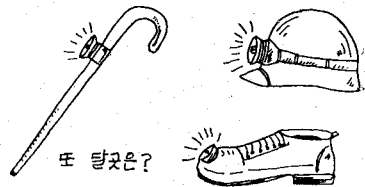
구미인에 비해 어른이 되어도, 특히 기계의 지식이라면 도무지 모른다.

그러나 요사이의 어린이들의 공작력이 차츰 나아져서 비행기의 모형 만들기나, 라디오 수신기의 조립같은 것에 흥미를 갖게 되어 발명에 필요한 기술상의 지식도 차츰 나아지고 있다. 여기에 부모들의 좋은 이해만 덧붙인다면 우리 겨레는 원래 뛰어난 두뇌이기에 장래에 희망을 크게 걸어도 좋을리라.

현재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하고 싶어도, 우선 「머리의 준비」와 경험의 정도에 따르는 것이므로, 처음에 손대는 것은, 될수록 어려운 것을 피하고 아주 쉽고, 간단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순쉬운 것으로 「짜마전구 달 곳 찾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자.

「전구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원리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아버지 지팡이」에도 달아 보고, 「모자」앞에도, 「운동화」코에도, 「안경대」에도, 「도라이버」에도, 「볼펜」에도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부터 찾아내어 달아본다. 이런 활동이 바로 발명이며,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 14. 나도 발명할 수 있다

미국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는 「발명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발명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거 큰 일인데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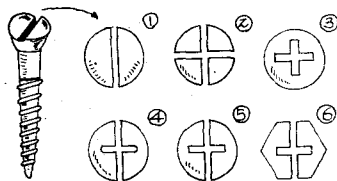
한담?」「여기가 마음에 걸리는데 고칠 수 없을까?」하고 보고 듣는 것 모두가 생각처럼 안 되는 것 투성이다. 아무리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도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는 한이 없다.

일상생활에서·직장에서·집안에서·질박에서「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저렇게 고쳤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이럴 때「어떻게 하면 이런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발명가인 것이다.

누구나 적어도 몇번쯤은 나사못을 박았으리라. 이 때 나무가 단단해서 저항이 크거나 나사못의 흠이 있거나 하면 드라이버가 벗어 나서 미끌어질 때는 참으로 속상하다. 더우기 흠이 망가져서 빠지도 박지도 못 할 때의 답답함. 이런 일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어 풀이 하여 겪은 일이다. 그러나 이때「올화가 치민다」로 끝내버리지 않고「어떻게 드라이버가 벗어나지 않고, 흠이 망가지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하고 연구하여 미국의 필립은「또 하나의 흠을 더 판 + 자 나사못」을 생각해 냈다.

미국은 이 필립의「+자 나사못」의 아이디어만으로 세계각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 모른다.

결국 발명이란 어떤 불편·불만·곤란같은 것에 부딪혔을 때 속상하고 화내고 체념하는 대신에「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는「도전하는 습관」을 불일 일이다.



위의 여러가지 나사못대가리의 생김새를 보고「왜 이렇게 변했을까?」하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자. 발명의 초보는 우선「생각하기」에 있다. 우리들의 신변의「가까운 곳부터」「조그만 것부터」「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까?」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것이며, 이렇게 한 가지 두가지씩 차근차근 쌓아올려 가는데 있다.

### 15. 고정관념을 버려야 발명 온다

칫솔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이와 이 사이에 낀 찌꺼기를 없애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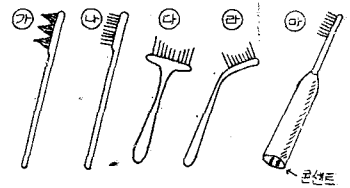
독일에서는 ㉔처럼 칫솔자루의 한쪽에 끝이 삼각형처럼 뾰족한 털의 산이 세 곳에 붙어 있고 중간에는 없다. 이것은 대단히 목적에 맞는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에서는 잘 팔리는 상품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으며 일본에서는 잘 팔리지는 않아도 상점에 진열은 되어 있다고 한다. ㉕처럼 자루에 대해 거의 평행으로 그것도 한결같이 털이 붙어 있어야만 칫솔이라고 한다. 그것이「상식」처럼 굳어 있다.

미국은 제2차 대전이 끝나자「칫솔 혁명」이 있었다. 칫솔은 자루에 대해 평행으로 털이 붙어 있다. 그러나 마루를 닦는 솔은 ㉖처럼 자루에 직각으로 털이 붙어 있다. 이 T자형의 마루솔과 평행으로 붙어 있는 칫솔과 어느 쪽이 닦는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T자형의 마루솔이 훨씬 좋다. 그렇다면 칫솔도 T자형이 좋을 것이다. 결국 마루 닦는 솔을 소형으로 한 것이 칫솔의 자루를 세로로 잡고 상하로 움직여 찌꺼기를 없앨 수 있겠다고 한 때 T자형 칫솔로 됐다. 그리고 이의 안까지 닦자고 ㉗처럼

L형의 칫솔로 바뀌고 그 뒤에 찌꺼기는 역시 상하로 몇번 움직였는가 칫솔로 된다. 대개 단시간에 상하운동을 될수록 빨리하면 된다는데서 ㉘처럼 전기 칫솔이 나왔다. 지금 미국 가정의 거의가 전동기로 되어 있는 전기칫솔을 쓰고 있다.

이것은 손에 잡힐만한 정도의 원통형의 용기에 발동기가 들어 있고 콘센트도 들어 있다. 콘센트에 자기의 칫솔을 끼우면 1초 동안에 60번(60짜이클) 상하 운동을 하니카입 속에 2~3초 넣으면 이따기는 끝나는 셈이다. 이것은 어더나 6개 또는 8개등 한 벌 판매를 한다.

칫솔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를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칫솔은 자루에 대해 평행으로 털이 붙었다」는「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 말하면「고정된 생각이 항상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언제까지나 상식에만 따른다면 새로운 것은 무엇 하나 안 나온다. 어제도 오늘도 같고, 내일도 오늘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것」이「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이「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계속>

**新 刊 案 內**

**CIP와 商標戰略**

辨理士 金 延 洙 著

가 격 : 8,0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